

제 226 호

사순 제 4 주일

1977. 3. 20.

순정이

발행인	김종택
인쇄인	범석규
주간	조성호
편집	한상갑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35098)

□ 칼론 □



귀향

김윤섭 신부

예수님은 오늘 복음에서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게 대하여 이야기 한다. 작은 아들은 무례하고 경솔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안정된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방탕한 생활로 재산을 낭비한다. 그는 결국 남의 종이 되고 만다. 배고픔과 고통에 시달린 그는 아버지 집의 행복과 부유함을 그리워한다. 마침내 자기의 경솔한 생각과 행위에 대하여 뉘우치고 용기를 갖는다.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는 산동성에서 아들의 귀로를 바라보고 기쁘게 맞아들인다. 아들의 얼굴에서 고뇌를 발견한다. 아버지의 마음은 격동되어 아들에게 달려가 그의 목을 포옹하고 키스한다. 이것은 아버지의 너그러움 용서의 표시이다.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욱 더 자기 죄를 뉘우치고 고백한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루카 15: 21)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셨을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아들에게 취할 수 있는 아버지의 태도를 묵상해 보자. 세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그 자리에서 내쫓을 수도 있었겠다. 혹은 아들이 감히 회개했듯이 (나를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써 주십시오. 얼마간의 시힘기간을 허락했을 수도 있었겠다. 혹은 패썹해서 못 본 체 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다. 이것은 아마도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견디기 힘든 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와같은 모든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오히려 즐거운 여행에서 돌아온 아들을 반기듯 아들의 귀향을 기뻐한다. 아버지가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 즉 다시 집에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포옹과 키스로 자기 사랑의 힘찬 표시를 거듭한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전보다 더 강한 사랑을 느꼈으리라! 이것이야말로 보통 보기 힘든 사건이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루카 15: 1-3, 11-32)에 대한 회개하여 돌아오는 죄인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를 보여준다. 집을 떠난 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듯이 우리도 죄인에 대한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감지하여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자.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자

이처럼 회개는 이국에서 아버지의 나라로 되돌아오는 귀향이며,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 받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자.

(전동 천주교회 보좌신부)



사랑의 실천

-보잘 것 없는 이웃

작박한 세태라고들 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흐뭇하게 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소개된다. 자신은 고통을 받으면 시도 어렵게 어렵게 모은 돈을 불행한 이웃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내놓는 일도 그 하나이다. 보도에 의하면 전북도내 교직원들은 공무수행중 병마로 쓰러진 전 문교장관을 위해 성금을 거두어 전달했다 한다 얼마나 흐뭇한 일인가? 아침과 저녁의 인심이 다르다는데 병고로 쓰러진 전임장관에게 그런 인정을 보여준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일이 뜨거운 심장의 고통이기를 더욱 바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슬픈 소식이 있다. 지난 겨울 숙직실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진 시골의 어느 교사가 파면처분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시체를 다시 죽이는 것 같아서 끔찍하게까지 여겨진다. 제발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숙직〉이 법적으로는 잠을 안자는 일인지는 몰라도, 그렇게 숙직을 한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일뿐더러 실제로도 그렇지는 못하다. 「한국어 사전」에도 이렇게 풀이하고 있다. -숙직(宿直)…관청, 회사, 학교 등에서 번갈아 잠을 자면서 지키는 일.

연탄가스도 제대로 내버려 둔 감독관청의 책임을 어느 선까지 따져야 하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다. 죽은 것버림할때, 근무태만이라는 죄목으로, 죽은 뒤 파면을 당했다는 일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 꼭 그렇게 해야만 질서가 잡히는 걸까? 그일이 바로 정의 구현이란 말인가?

정의의 범칙보다는 사랑의 범칙이 우리를 더욱 풍요롭게 해준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자. 정의를 흐리게 하자는 말은 더욱 아니다. 불행한 형제를 찾아보는 일은 참으로 훌륭한 사랑의 실천이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보잘 것 없는 형제"는 누구인가?

순정이 산책



당신의 돼지는 많이 컸습니까?

□진복팔단③□



행복하여라 은유한 사람들!

김 영 구 신부

“행복하여라. 은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하리니.” (마태오 5,5)

세상 사람들의 생각대로라면 “행복하여라. 강포(張暴)한 자여! 지뢰가 세계를 정복할 것이요.”라고 말하겠지만, 시편(37, 11)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은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다.” 또, 무거운 짐에 허덕이는 사람을 편히 쉬게 해주었으니 다 오라는 은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태오 11, 28-30)

은유한 사람은 하느님께 대하여 겸손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느님의 경륜(經綸)에 대하여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불행이나 재난, 실패나 슬픔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은유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환경을 당하든지 하느님의 허락하시는 바이면 조용히 참고 견디는 것이 은유한 사람들의 하느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이나, 유성인이 어떻게 그 어려움을 견뎠는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유한 사람은 역시 사람에게 대해서도 은유합니다. 언제든지 은유와 겸손은 쌍둥이 같아서 은유한 사람에게는 역시 겸손이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은유는 잘 인내하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이 잘못했을 때 관대히 용서합니다. 은유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강한 자가 이긴다고 하지만, 유능제강(柔能制強-부드러운 것이 능히 굳센 것을 이김)이란 말이 있습니다. 옛 현인도 이력복인(以力服人-힘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킴)은 잠깐이요, 이심복인(以心服人)은 영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웃을 벗길 수 있는 것도 강한 바람이 아니라 따뜻한 햇볕이었다는 우화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전 유혈을 흘릴던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라는 작은 섬에 정배(定配)가서 운명을 달리하는 순간 그는 큰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남긴 몇마디 말로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는 칼로 은 유혈을 정복하였지만 결국은 실패하였노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 인류를 정복하였다”.

은유한 사람은 물질이 적거나 많거나 이 세상에서도 참된 축복을 받습니다. 의인의 오락살이가 악인의 대궐보다 행복한 곳입니다. 의인의 나물 밥이 악인의 고량진미보다 더 맛있습니 다. 새 하늘과 새 땅은 은유한 사람만이 기쁨으로 받을 것입니다.



베델 성서 강습을 마치고(2)

성서의 보다깊은이해 위해 방법론을 제시
구약을 모르고 신약을 이해하기는 어려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반적인 개관을 살핀다고 할 때 가령 신약을 「지봉」이라고하고 구약을 「벽」이라고한다면 구약을 모르고서는 신약은 불가능하다. 예를들면 「선별」(separation)의 개념은 어떤 뜻인가?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만을 선택하셨는가? 구약의 큰 개념인 「축복」은 신약의 어떤 뜻인가? 「베델」성서는 또한 해석학적 기반을 발전시키준다. 말하자면 성서해석의 과학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성서를 대할 때 어떤 선입주견을 갖고 대하기가 쉽다. 그러나 「베델」성서는 먼저 성서로 돌아가라는 것이 주교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성서를 대할 때 우리는 항상 히브리 사고식(思考方式)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성서로 본 성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한마디로 「베델」성서연구는 우리가 성서를 좀더 깊이 파고 들려고 하고 깊이 연구하고자할 때 그 방법론을 가르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무슨 학문을 한다고 할 때 그 방법론을 모르고서는 그학문을 하기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성서를 아무리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성서의 어떤 한귀절을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에 대한 전체의 윤곽과 그연관성 그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고서는 이해하기란 어려운 것이다.

「베델」성서는 또한 지식적인 기반을 넓혀준다. 「가져야만이 줄 수 있다」는 철학의 격언을 인용한다면 누가 남에게 주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가진 것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아는 것」이 없이 어떻게 그에 대한 「지식의 전달」을 할 수 있겠는가. 「행동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행동하기 마련이다.」 모르면 행동이 이뤄지지 않는다. 성서의 지식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도들을 가르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성숙한 행위가 나오기 위해서는 역시 그만큼 행위이전의 지식이 요구된다. 앞서서도 언급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말씀의 예술가」이다. 또 「말씀의 예술가」가 되어야 한다. 「말씀」을 놓고 「자기심화」(깊이있는 삶)를 먼저 해야 할 것이며 그것의 전달의 사명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계속)

<부안천주교회 주임신부>

신자들의 건강 센터

성심당 한약방

이 성 범(필노리아노)
육교길 구 북부배차장 옆
전화 ⑤ 4544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요 교우집으로!

미성당 시계점

장 금 태(방지저)
전화 ②3301 (자택 ②8548)

각종 페인트·지물
비닐 장판·표구재료·화선지

K.S자습료 페인트 대리점

대 동 지 업 사

임 정 원(도민교)

□전주시 풍남동 1가 17(동문사거리)
☎ ②5986 · ②2765

전주교구 제3회 교리 경시대회

각 본당별 우수학생 성적일람표

(중 등 부)

(고 등 부)

본당	1위	2위	3위	본당	1위	2위	3위
고창	정준성 90	오만록 85	임만옥 83	좌동	박연옥 90	조민숙 87	정공성 84
김계	강정숙 76	강경숙 74	김애실 68	"	이정표 82	이상환 81	이중훈 74
수류	김형태 62	윤정희 62	고봉호 56	"	장봉수 59	온미정 52	김준호 48
신태인	최명호 76	고광덕 74	강현식 70	"	이영희 86	이상화 84	최성란 83
대야	신미옥 82	김한영 80	문병숙 78	"	최명숙 87	이세인 70	김영중 70
둔을동	곽동만 97	박종충 92	구기성 92	"	김진숙 77	성신용 77	김혜현 75
월명동				"	조운영 88	강희숙 87	김순만 87
중동	이순옥 78	김경희 72	김미정 66	"	심우홍 77	배용구 76	김용근 75
합열	석정희 95	김용일 93	박향 91	"	박오진 87	한상옥 85	한현숙 81
화산	김영국 82	박종연 82	박종태 80	"	서철옥 75	김신태 67	오영택 54
고산	박남수 84	박상녀 79	김숙연 68	"	이영수 76	박순자 71	배석홍 52
삼례	이희순 84	최문주 82	강명숙 82	"	이희숙 78	김영운 66	김윤화 66
여산	김신태 89	김금숙 86	최영재 70	"	최윤진 87	이은상 85	조영순 81
주현동	김미희 91	장희 83	이후근 73	"	노영순 82	이덕근 80	김경주 78
창인동	이선화 92	전병희 86	김효선 84	"	김병환 84	문진구 82	신정철 80
황등	김영순 90	정시택 82	양제성 78	"	김남수 68	양제연 66	고성용 64
노송	이경 82	배원탁 78	이욱 74	"	한남식 76	이정희 74	최진림 68
덕진	주영란 88	정경숙 84	송기성 78	"	김옥자 77	박현상 76	이성철 73
복자	최옥란 82	이장희 63	김영수 62	"	김용진 92	박경희 86	정은자 82
서학	이수정 94	유영대 93	유동근 90	"	이수영 88	유양순 82	김정자 81
윤정이	전은이 86	이정희 84	소영숙 84	"	장은숙 88	김경숙 84	이숙희 82
진동	최혜숙 82	김종진 82	이은숙 80	"	박미선 84	주영숙 82	박선희 80
중앙	강윤궁 80	김진화 76		"	김혜숙 88	김진룡 88	이용철 88
금산				"			
무주	김말희 93	최경희 90	서해경 80	"			
남원	최명자 92	이태은 90	김호연 88	"	정광호 84	오지남 76	정해경 72
상관	양춘옥 80	남신 76	김봉용 72	"			
순창	이용 72			"	오예순 70	허우무 67	이양립 62
임실	박옥연 76	한정선 64	윤혜선 62	"	서금순 68	정현자 62	
부안				"	신미순 68	김영진 64	강영순 64

요십이 (190) 김병오

22일, 문신부님 상고심 판결을 합니까? **그래**

내가 대법원판사가 될때까지 판결을 연기할수 없나요? **이유는?**

무죄 언도를 내릴려고요 **그래? 얼마쯤 연기하면 될까**

내가 지금 국민학생이니까 앞으로 약 30년쯤 연기해주면 되겠오

□이전 안내□

성원약국

성원표(스메파노)
□태평동 전매청 좌측
200m지점
전화 ⑤5780

각종 생파자 식빵 및 케익크

미미제과소

전화 ⑥589
전주시 검원동 1가 104~26
(상업 은행 옆)
김민주(가타리나)

□개월안내□

★언제나 찾아주세요★

수석(水石)치과의원

전주시 중앙동 3가 42~1
(박소아과) 앞
원장 김현(아오스딩)
전화 ②1665

◎사진기계·사진재료 도산매◎

태광사

유영문(가이다노)
전주시 중앙동 3가 67
전주우체국 후문 앞
전화 ②6346

지업부: 벽지, 장판, 각종 비너루
문방구: 학용품, 사무용품
완구부: 보행기, 어린이 장난감 일체

동아상회

※교우 특별우대, 많이 찾아주세요!
장경암(레오)
완주군 고산면 읍내리(주장 옆)
전화 106번

◎새롭고 저렴한 연탄 보일러 안내◎

한국(流)온수 온돌 공사

(본사직영 호남출장소)
이리시 인화동 2가 65-16 (전화 4940)

한	등	암(모이세)
노송동 ③4874	부안 736	남원 90
다가동 ②4342	정읍 2157	임실 261
전진동 ②2143	김제 45	무주
군산 3032	삼례 350	진안

☆각 지방 지점 구할 (계약금 없음)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1. 사순절입니다. 뜻깊게 보냅니다 ①사제양성 후원을 위해 각 가정에 나누어 드린 돼지 저금통에 정성을 모아 봉헌합니다. ②금요일(소제)...사순절 동안의 매주 금요일 ③금육과 단식일(대제)...4월8일 (주의 수난 금요일)
 2. 월요 기도회 (21일 <월> 오후 7시반, 가톨릭 센터) 특별 초대 연사의 강론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3. 덕진 본당 새 성당 기공식 (오늘 12시)
 4.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연수회 (26일<토> 오후 1시-27일 오후 4시 가톨릭 센터. 회비1,000원) 형제회원의 참석은 물론, 뜻있는 교우들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 노송동 본당에 알아보세요.
 5. 교구 중고등 학생회 19대 회장에 조영교(해성고2년), 부회장에 김민자(성심여고2년)
 6. 금주의 방송 안내 서해방송 매일 밤 11시 30분, 「사색의 오솔길」, 정승현 신부방송
 7. 대학생 연합회 신입생 환영회(26일<토> 오후 3시, 가톨릭센터)
 8. 예수님 고난에 대한 묵상 및 영화상영(27일 <일> 밤 8시, 가톨릭센터 강당, 범석규 신부 지도)
- 경감룡 서을 대교구 보좌주교 서품(25일, 명동성당)...새 주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앙)

전화 ③3651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김진석
사도 회장 이복석

1. 성모회 월례회: 20일 10시 미사후, 강당
2. 부모님들! 자녀들의 주일학교 출석은 어떻게 됩니까?
3. 미사참례 때는 앞에서 부터 자리를 채웁시다.
□축 결혼! 김태진(비오)군, 김옥희(안나)양, 20일 12시
□주일 봉헌금: 108,006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공아영
보좌 신부 권용희
사도 회장 박종용

1. 행복한 가정운동 연수회: 오늘 공식 미사후 ※젊은 부부들의 많은 참석바람
2. 성모회 성우회 월례회: 오늘 공식 미사후
3. 중·고생 특별미사: 다음주일 <27일>부터 매일요일 오전 8시반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4. 본당 L·M조직 1주년기념일: 3월 25일
①가림 특별미사-24일<목> 오후 7시
②L·M 회원 친목회-기념미사후에 있음
※본당 내의 모든 L·M 단원들 빠짐없이 참석바람
5. 사순절 특별 강론: 25일<금> 오후 7시반 <하느님은 모든이름 부르신다-정승현 신부님 (사목부국장)>
6. 판공일정: 왕정리-21일<월>, 황운리-22일<화>, 우아동-23일<수> 오후 1시반 구역장래, 24일<목> 오후 1시반 신덕반에서
7. 재속 3회 연수회: 26일<토>13시~27일<일> 16시, 가톨릭 센터 ※많은 참석과 협조바람
□주일 봉헌금: 43,925원

(덕진)

전화 ②2182 주임 신부 박종근
사도 회장 김용환

1. 새성당 기공식-오늘 12시 <건진성사-공식미사후에 주교님 모시고> ※신축현금 담부바람
2. 학생회 월례회 대비 임시총회: 20일
3. 청년회 월보원고 모집
4. 어린이 교리시간 변경: <일>오후 2시, 미사-3시
□주일 봉헌금: 60,555원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김종길
사도 회장 조성호

1. 신자들의 기도
20일...유기순, 최철평, 양복희, 공순애, 정영준
27일...김종술, 고희구, 최집순, 박주현, 박미성
2. 사순절 피정: 23일<수>, 24일<목>, 30일<수>, 31일<목> 저녁 미사후 (8시) ※교우 참석바람 (참석자는 잘고없이 성사표준)
3. 판공 성사 일정: 다가동, 중앙동, 고사동-3월 30일<수> 오후 2~5시, 완산동, 화산동, 효자동-3월 31

일<목> 오후 2~5시, 태평동, 진북동, 기타-4월 1일<금> 오후 2~5시, 성사 못보신분들-4월 2일<토> 오후 2~4시 직장인, 학생-저녁 미사후

4. 견진 교리 시간: 20일 (견진자 전체), 26일 부터
①매 일요일 오후 2시 (초·중·고생),
②매 월요일 오후 4시반(일반인)
□주일 봉헌금: 35,966원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박장춘

1. 할머니회·어머니회 월례회: 공식 미사후
2. 가정 방문 및 반사회: 9반-22일, 10반-23일, 11반-24일, 12반-25일, 13반(평화동)-29일
3. 판공 성사 일정: 구이던 마을리-31일, 광곡리-4월 1일, 석구리-4월 2일, 1~6반-4월 4일, 7~11반-4월 5일, 12, 13, 기타반-4월 6일
4. 애령회: 공식 미사후
5. L·P조직 되었으니 매주<화> 15시에 많은 참석바람

(술정미)

전화 ②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전종근

1. 유아세례: 매월 마지막 주일 공식미사 전
2. 예비신자는 사무실에 등록해 주시오
3. 미사시간 변경 ①주일 공식미사-오전 10시, 오후 미사-7시반 ②평일미사-매일 오후 7시반
□주일 봉헌금: 62,62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한기
보좌 신부 김윤석
사도 회장 유석중

1. 꼬미씨움 월례회: 오늘 오후 1시반
2. 동 반장회: 오늘 저녁 미사후
※이번 주 가정심방-풍납동, 노송동, 전동, 다가동, 중앙동, 경원동 <월~금> ※중 묵상회-<금> 저녁
3. 부활영세 교리: 28일부터 매일 저녁
4. 축! 중·고 교구 연합회 부회장: 김민자(아가다),
5. 중·고생 임원회의: 금일 오후 4시, 사제관에서 중·고cell의장단 회의-26일<토>오후 3시
6. 성서 동지회 1일 묵상회: 20일<일> 10시 미사후 중 바위
7. 단식·금육재로 인성회에 현금합니다.
※새 성당 건립에 대한 우리모두의 결의
1977. 3. 8 교우일동-

1. 우리교우 모두는-성당이 완성될 때까지 하느님의 도우심에 절대신뢰 한다.
2. 중단없이 제반 자원조달에 총력을 기울인다.
3. 총화단결 하여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이 일을 완성한다.
□주일 봉헌금: 116,780원